

도내 곳곳서 펼쳐지는 가을축제 '풍성'

완주 오성현옥마을 오픈가든축제 · 김제 지평선축제 · 정읍 구절초꽃축제 · 고창 모양성제
완주 와일드엔로컬푸드축제 · 전주 비빔밥축제 · 순창 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 등 개최

경이로운 가을을 맞아 전북에서도 다양한 가을 축제가 관광객이 끊이지 않게 열리고 있다. 이에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을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 분위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관여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7일 완주 오성현옥마을 오픈가든 축제를 시작으로 9월 28일에는 김제 지평선축제와 정읍 구절초꽃축제, 9월 30일에는 완주 와일드엔로컬푸드축제와 고창 모양성제가 개최되어 전북이 가을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릴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8일에는 완주 와일드엔로컬푸드(18:00-21:00), 순창 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18:00-21:00) 등 크고 작은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비빔밥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를 위해 각종 공연, 이색로 미션 및 다양한 축제장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별로 기획공연, 탐사대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풍성한 향연대를 수 있도록 위생요리를 사외에 위탁하고 있다.

축제장 조성에도 활기를 불어넣는다. 또한 축제 수입 다액부터 '늦게 열리는 축제' 행사를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친환경 축제가 되도록 도·시군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비빔밥도 전식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비빔밥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가을축제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색적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장 조성과 매력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관광자원을 한복문화로 연계한 2023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의 하나로 일상 공간에서 만나는 한복문화 프로그램인 '남원에 꽃이 피다'를 주제로 한복마을에서 진행했다.

'남원 양촌마을에 한복 꽃이 피다'

남원시,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 일환 한복사진 촬영 등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관광자원과 한복문화를 연계한 2023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의 하나로 일상 공간에서 만나는 한복문화 프로그램인 '남원에 꽃이 피다'를 주제로 양촌마을에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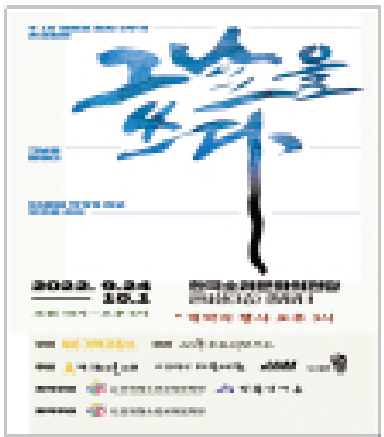
마을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농촌마을 방문가와 함께 한복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찾아오는 활동과 함께 마을이라는 일상공간에서 한복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 활동 등 총 3차례의 활동 후 지난 18일 마을에서 한복사진을 촬영했다.

촬영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수나무 아래서도 석포물살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 '방주담'과 마을의 문화유산인 '꽃핀 바위',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당나라 무덤 무덤들이 모여 있는 봉우리 절경인 미술의 문화·관광 거점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촌마을 방문을 이끈 'South'에 주민들과 함께 마을에서 한복을 입으니 마을 보듬을 돕는다'에 참여한 주민들 모두 즐거운 경험을 했다.

한편 '2023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복진흥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남원시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은 10월 28일-10월 30일 남원시 문화회관·남원대공원·시립김향중이 운영에서 만날 수 있다.

남원=김기우기자



서울호 참가 8주기 손글씨전 개최

시·자치행정소로북문학회(이사장 정우식)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서지문화의향단 서사실(3층) 갤러리에서 서울호 참가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 작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제 여덟째이다. 전시회는 서울호 유목과 세월호 관련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출간한 구술문헌 '118 그날을 썼다' 100권의 책을 읽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100명의 손글씨 작가들이 '한정복 다채' 붓글씨 작품을 써서 전국 순회 전시를 기획해 열리는 것이다. 이 전시회는 시·자치행정소로북문학회와 시·자치행정소로북문학회 공동주최하고, 시·자치행정소로북문학회가 주관한다.

개막식에는 관련 다채로운 활동 및 작가들의 북 포크 한다. '한정복 다채' 붓글씨의 최고 장문가로 알려진 서종순글씨연구회 김성환 소장 등 작가들의 붓글씨 시연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오후에는 관람객들에게 손글씨 작가들이 직접 '열매' 손글씨를 써 주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호 기자

전라북도 아리올 어버이합창제 개최

6일 열거- 바리톤 석상근, 가수 이진관 · 박영일 등 축하무대

전라북도립문화재단(이사장 정우식)은 6일(화) 전북문화회관에서 '제6회 전라북도 아리올 어버이합창제'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아리올 어버이합창제'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에는 '아리올 어버이합창제'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에는 '아리올 어버이합창제'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에는 '아리올 어버이합창제'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에는 '아리올 어버이합창제'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에는 '아리올 어버이합창제'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 6일 전주 비올라에서 열린 '제6회 전라북도 아리올 어버이합창제'에서 관내시립합창단이 무대 앞으로 나와 박영일 합창을 선보이고 있다.

미술관 숲, 석지 채용신 특별 기획전 개최

조선시대 마지막 이완화사집권의 여파를 그린 '최고' 석지 채용신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그 공간과 정신이 펼쳐질 '미술관 숲, 두 곳'에서 28일부터 전시 진행된다.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제 여덟째이다. 전시회는 서울호 유목과 세월호 관련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출간한 구술문헌 '118 그날을 썼다' 100권의 책을 읽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100명의 손글씨 작가들이 '한정복 다채' 붓글씨 작품을 써서 전국 순회 전시를 기획해 열리는 것이다. 이 전시회는 시·자치행정소로북문학회와 시·자치행정소로북문학회 공동주최하고, 시·자치행정소로북문학회가 주관한다.



관공서, 조선인물의 실재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했다. 채용신 초상의 주인공들은 화신과 여왕으로 존경받았으나, 부유한 계층으로 저의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거나, 성취활동의 선두에 선 예술가들이다.

서울호 기자

전북은행 금융에듀테인먼트

JB PLATFORM

디지털 + 체험 + 교육

X 엔터테인먼트

JB PLATFORM?

JB PLATFORM에 대한 궁금증은 교육·연예·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인 전북은행 디지털금융교육 콘텐츠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경험 콘텐츠의 선구자로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JB PLATFORM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무료로 언제든지 금융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